



웹사이트 제작 프로젝트 | TEAM CINEBITE

A smartphone screen showing a web browser with the cinebite website. The page features a large image of the Pixar movie "Inside Out" with the Korean title "인상이득" (Inside Out) in white. The website navigation bar at the top includes links for Home, About, Learning Time, Preview, and Favorites, along with a search bar and a user profile icon for "바이트123".

기획 | 문지원 박가연 이민호 김수빈 이유림

디자인 | 김수빈 이유림

코딩 | 문지원 박가연 이민호



INDEX

개요

소개

리서치

유저 리서치

타겟

퍼소나

기능

기능 소개

정보구조도

디자인

로고 디자인

디자인 시스템

인터페이스

소개

100분 이하 영화 큐레이션 플랫폼 “시네바이트”

시네바이트는 러닝타임 100분 이하의 영화를 선별해 큐레이션함으로써,
짧지만 밀도 있는 콘텐츠 탐색 경험을 돋는 영화 추천 플랫폼입니다.

짧고 핵심적인 콘텐츠에 익숙한 사용자 흐름에 맞춰,
탐색은 빠르게, 선택은 직관적으로, 결정은 간편하게 설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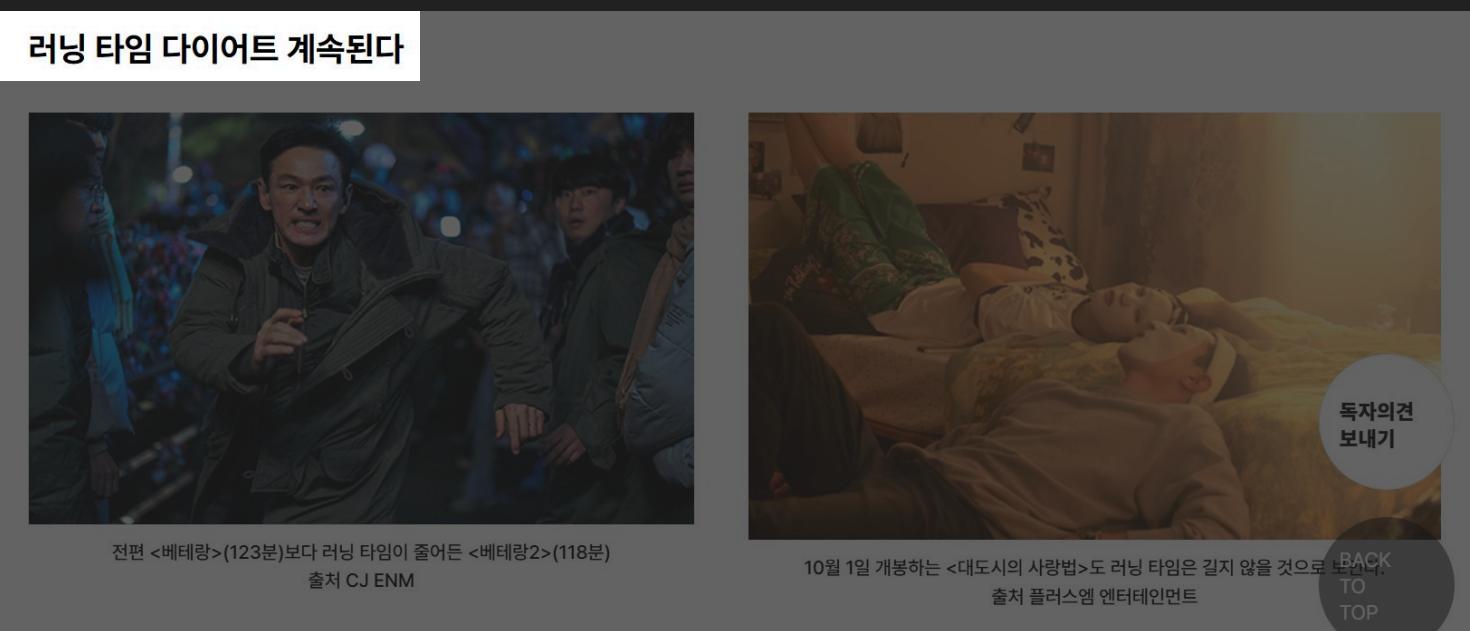
장르·상황·러닝타임 필터와 AI 예고편 추천 기능을 통해
사용자는 자신에게 맞는 영화를 더 빠르게 발견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개

시간은 부족하지만 콘텐츠는 넘치는 시대. 선택의 피로를 줄이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긴 영상을 끝까지 보는 대신, 결말만 확인하거나 요약 콘텐츠로 대체하는 시청 패턴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플랫폼들도 짧은 영상 섹션을 강화하며, '짧지만 확실한 콘텐츠'를 골라주는 큐레이션의 가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HOME > Trends > Trend Watch > 트렌드모니터

[트렌드모니터] '빨리빨리' 한국 문화, 영상 콘텐츠도 '빨리 감기' 시청으로

▲ 채성숙기자 | ○ 승인 2023.10.07 00:00 | Ⓜ 댓글 0

조사 기간: 2023년 7월 06일 ~ 7월 10일
조사 대상: 최근 3개월 이내 유튜브, OTT 시청 경험이 있는 전국 만 19~59세 남녀 1,000명

【 매드타임스 채성숙 기자】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면서 영상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가령 과거에는 영화나 드라마와 같은 영상 콘텐츠를 감상할 때 충분히 시간적 여유로 음악과 배우들의 연기에 몰입하고는 했다. 그러나 지금은 결론을 빨리 알고 싶거나, 많은 작품들을 소화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영상 콘텐츠를 빠르게만 소비하고 있다. 이러한 소비 패턴에 따라 최근에는 '배속 시청'과 '스킵'이나 영상을 요약해 주는 유튜브 영상이 인기를 얻고 있는 추세이다.

작성자: 채성숙 기자 | 최종수정일: 2023.10.07 00:00 | 조회수: 1,000 | 댓글수: 0



문화·라이프 > 문화 일반

길면 안 봐요, 흥행 영화 '짧게 더 짧게'

한국영화 톱10, 3년새 15분 단축
유튜브·OTT 시대 새로운 생존법

박돈규 기자

과자 한 봉지 먹을 시간이 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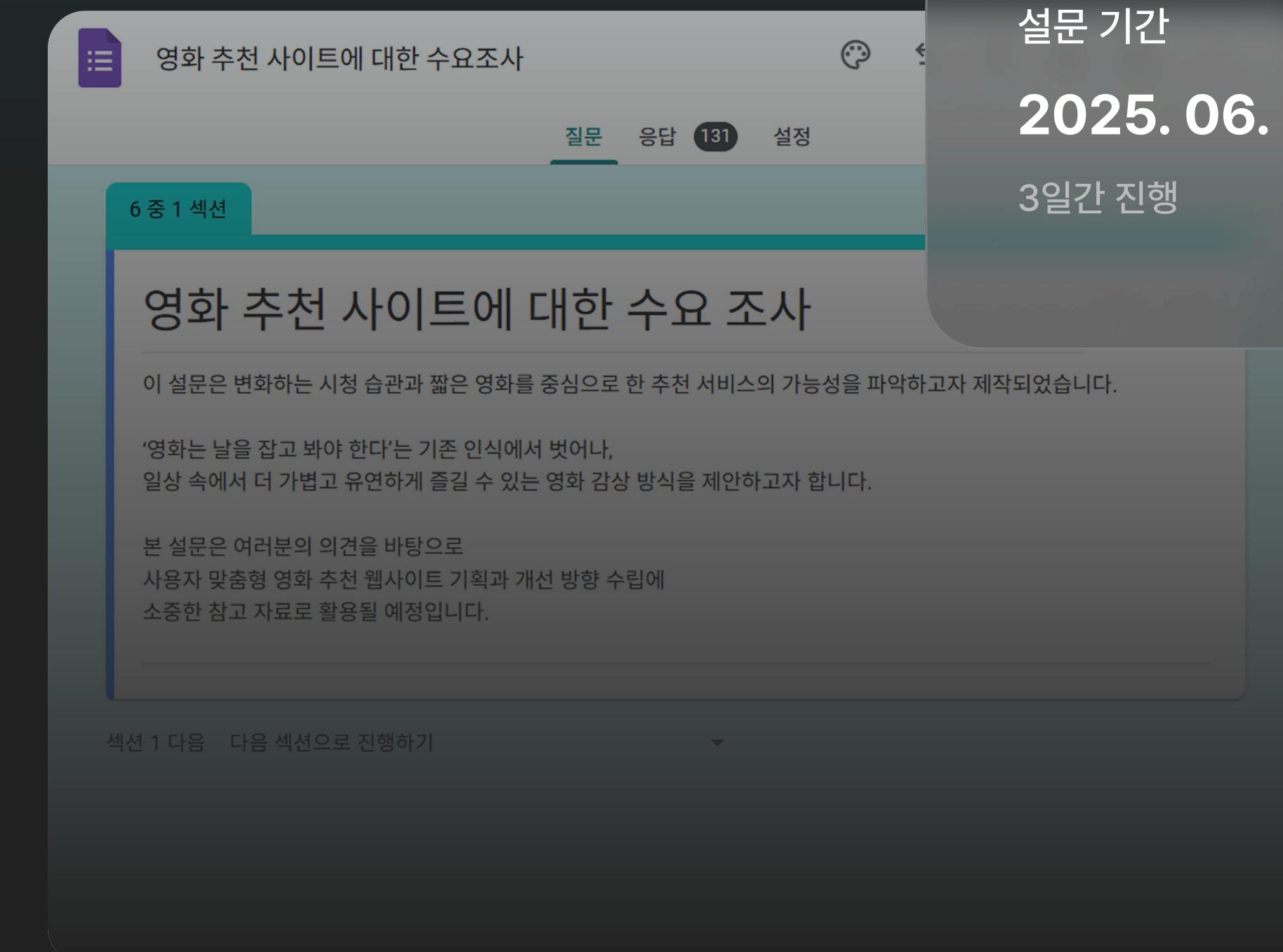
박정훈 기자

짧아진 런닝타임은
주 소비층은 2~30대
는 걸 부담스러워한
험보다는 짧아진 런
유입하겠다는 전략

유저 리서치

짧은 영화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 직접 들어봤습니다.

시네바이트의 타깃 사용자를 이해하기 위해,
영화를 즐기는 131명을 대상으로
짧은 영화에 대한 인식과 시청패턴에 대한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응답자

총 131명

여성 66.4%, 남성 32.1%
20대 55.7%, 30대 27.5%
40대 이상 11.5%, 10대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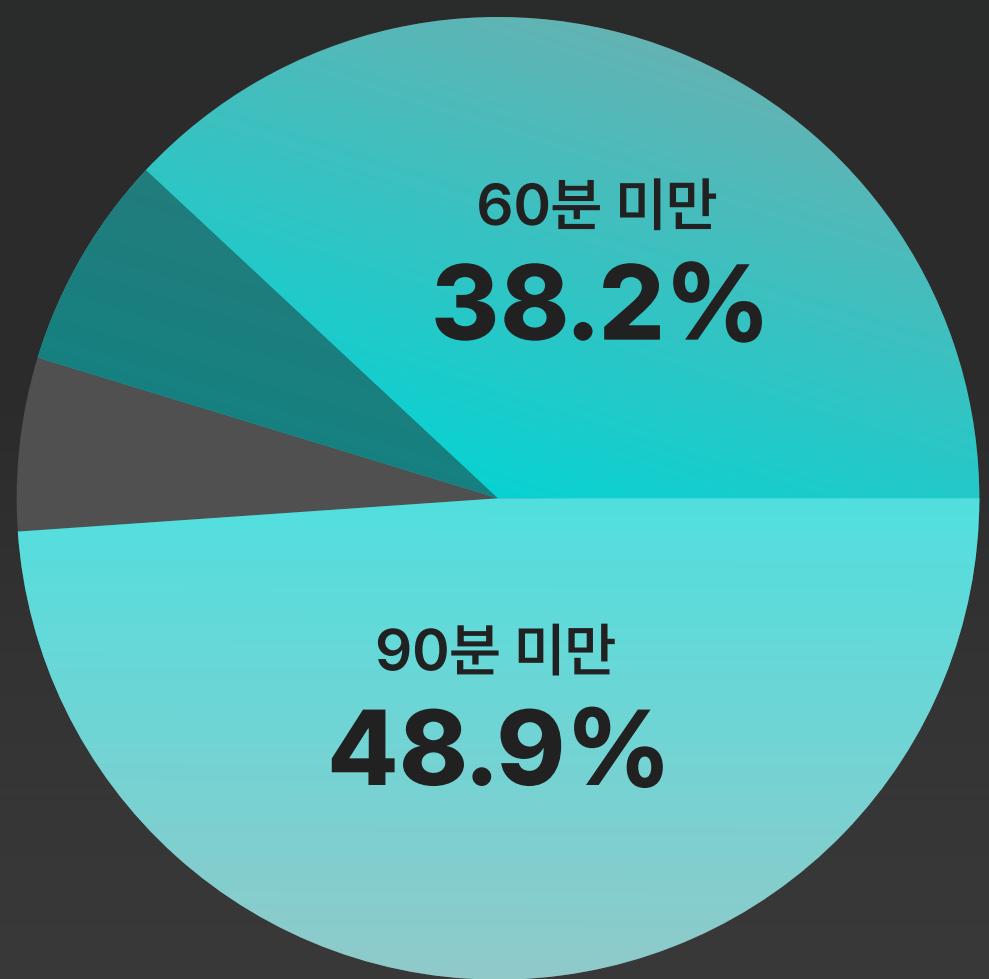
설문 기간

2025. 06. 13 - 2025. 06.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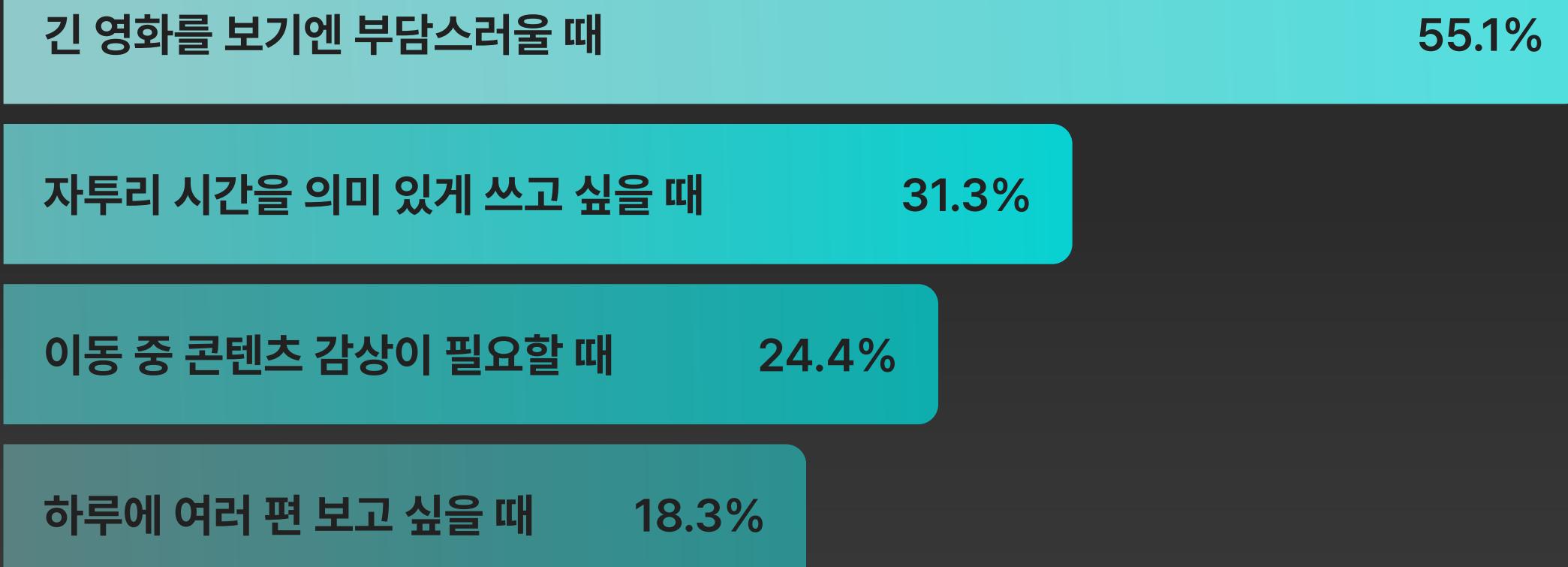
3일간 진행

대부분의 사용자가 90분 이하를 짧은 영화로 여기며,
틈새 시간에 감상하고자 하는 수요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Q. 영화 상영시간이 짧다고 느끼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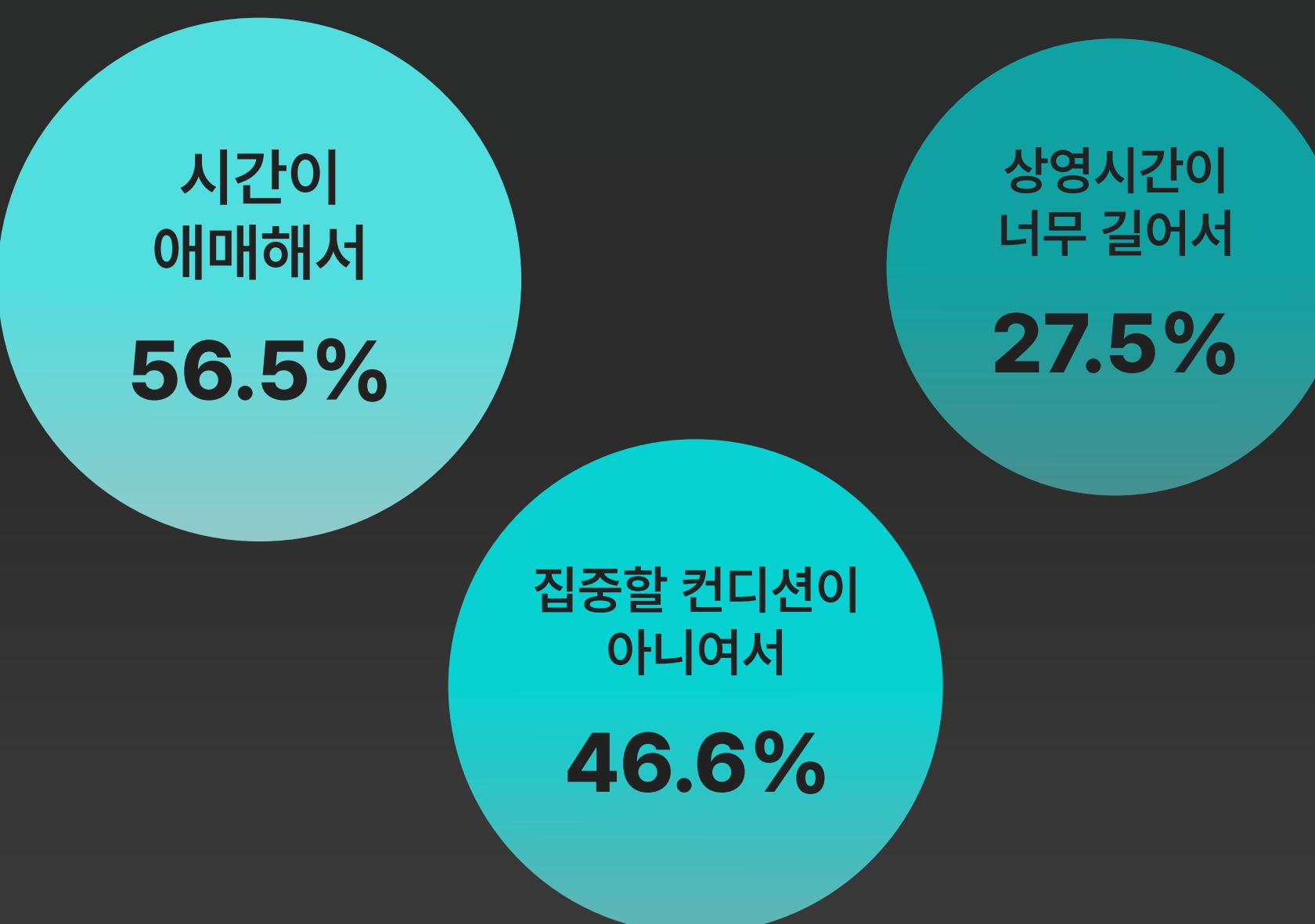


Q. 짧은 상영시간의 영화를 본다면, 주로 언제 보고 싶으신가요?



짧은 영화는 시청 빈도를 높이는 동시에,
시간 부족이나 집중 어려움으로 인한 감상 장벽을 낮춰주는 대안으로 작용합니다.

Q. 영화를 보려다가 포기했던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Q. 짧은 영화 콘텐츠가 늘어난다면,
영화 시청 방식에 어떤 변화가 생길 것 같으신가요?

- | | |
|-----------------------|-------|
| 더 자주 영화를 보게 될 것 같다 | 28.2% |
| 다양한 장르를 시도할 수 있을 것 같다 | 28.2% |
|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지만 흥미는 있다 | 24.4% |
| 변화가 있을 것 같지 않다 | 16.8% |

타겟층

시네바이트는 영상 콘텐츠에 익숙한 20-30대를 주요 타겟으로 합니다.
이들은 일상 속 짧은 콘텐츠 소비에 자연스럽고, 빠른 판단과 간결한 정보 구조에 익숙한 사용자층입니다.

콘텐츠 소비 방식

짧고 빠르게, 핵심만 본다

짧은 영상, 핵심 중심 구성에 익숙함

긴 설명보다 빠른 인지와 결정 흐름을 선호

썸네일·한줄 요약 등 시각적 정보에 먼저 반응

탐색 행동 특징

보고 고른다, 직관이 중요하다

예고편·썸네일을 먼저 확인

콘텐츠를 스캔하며 빠르게 판단

정보보다 '분위기 전달'이 결정 요인

인사이트

취향에 맞는 추천을 원한다

좋아요 수·추천 기반 콘텐츠에 신뢰를 둠

기분·상황에 맞는 콘텐츠 큐레이션을 선호

복잡한 탐색보다 직관적인 추천을 선호함

Persona



박수호 | 27세

해비유저

Behavior

- 하루에 영화 한 편 이상은 꼭 챙겨보는 습관
- 평일엔 퇴근 후 시간이 부족해, 짧은 러닝타임의 영화를 찾음
 - 감각적인 단편영화나 독립영화도 자주 감상

Pain Point

- OTT에서는 짧은 영화 찾기가 어렵고 비효율적임
- 짧은 러닝타임 영화는 추천받거나 검색해서 직접 찾아야함



문유빈 | 32세

라이트 유저

Behavior

- 점심시간, 자기 전, 출퇴근 시간 등 짧은 시간에 영상 시청
 - 드라마나 긴 영화는 시작이 망설여짐

Pain Point

- 러닝타임을 미리 알 수 없거나, 검색 과정이 번거로움
 - 영상 플랫폼은 너무 콘텐츠가 많아 고르기 피곤함
- 짧고 재밌는 영화를 한눈에 보여주는 큐레이션이 부족함

기능 소개

사용자 조사와 리서치를 통해 정의된 프로젝트 목표를 중심으로 기능을 도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러닝타임 필터링

사용 가능한 시간을 선택하면
그에 맞는 영화를 자동으로 추천

러닝타임 슬라이더 바

시청 기록 기반 인사이트 제공

취향 기반 큐레이션

단순한 장르 추천이 아닌
사용자의 선호도, 반응, 시청 시간 등을
종합 분석하여 영화를 정밀하게 추천

AI기반 맞춤 추천

자동 태그 분석(ex. '여운있는', '반전 결말')

상황별 / 시간별 / 경험별 추천

사용자 경험 중심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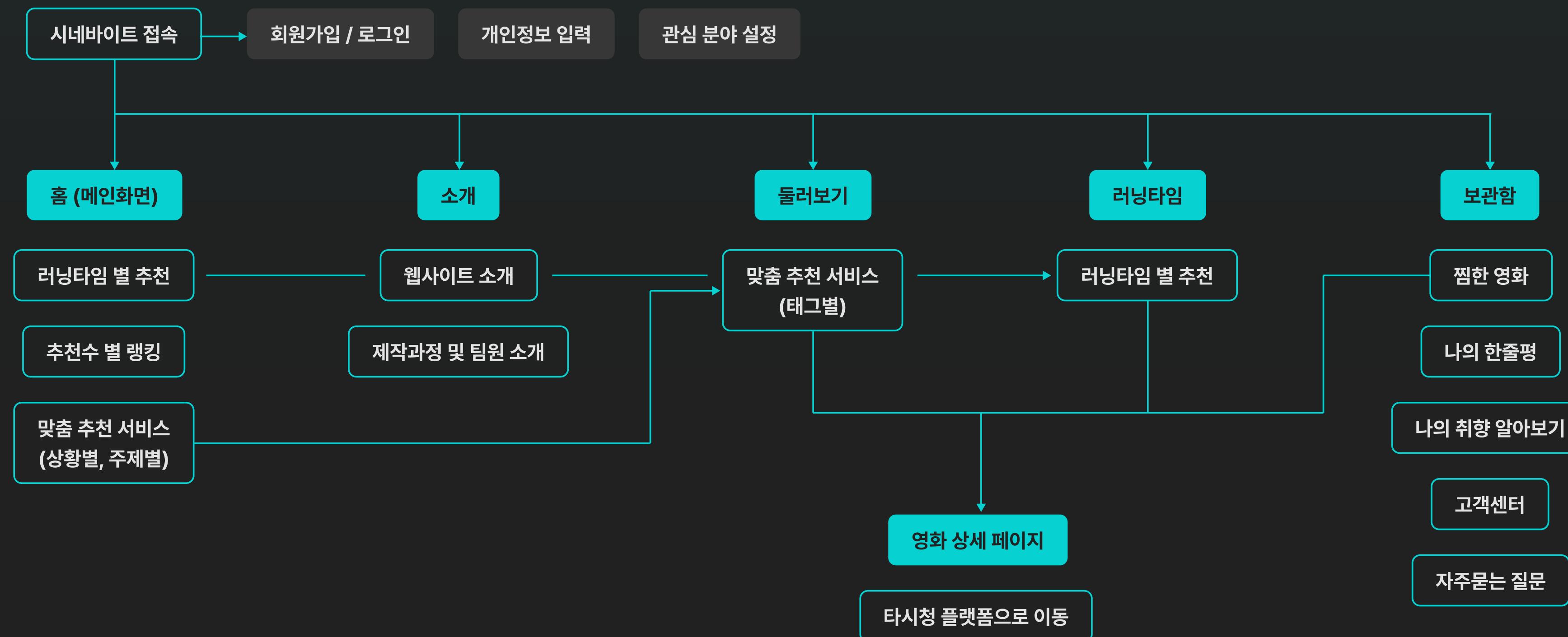
사용자가 찜한 영화들을 볼 수 있고
시청한 영화 평가를 남기고 그에 따라
시청 경험을 분석해주는 기능

코멘트 기능

시청경험 분석 서비스

내가 찜한 영화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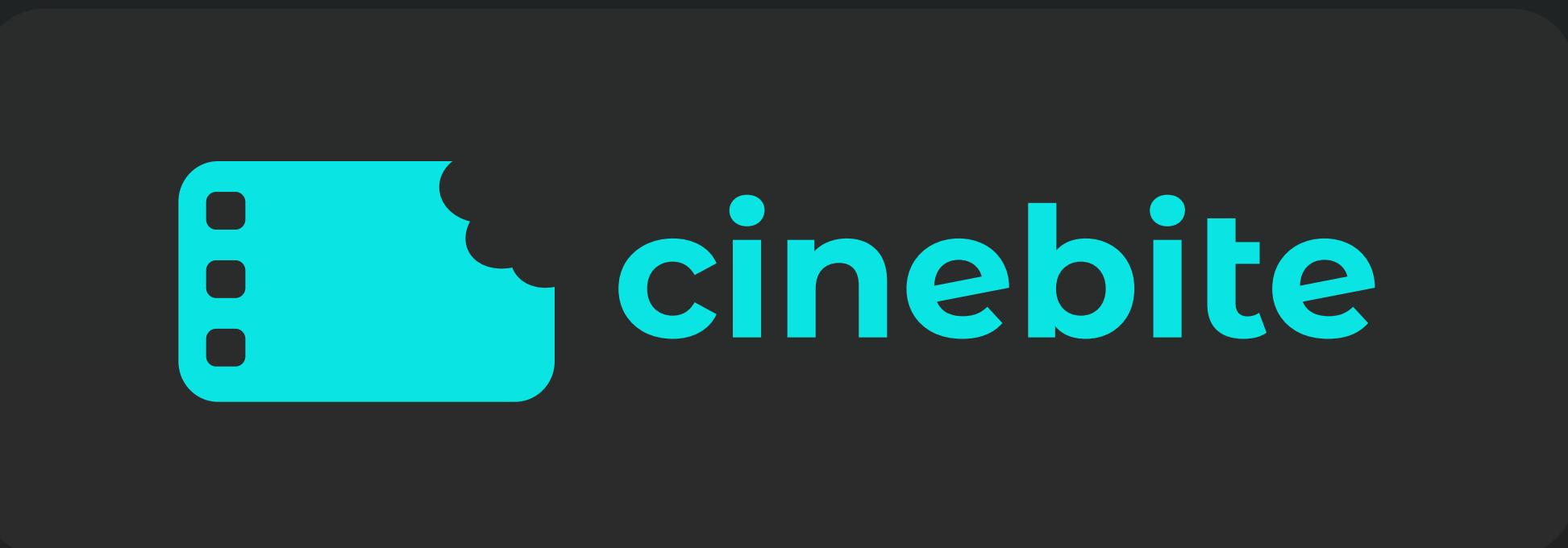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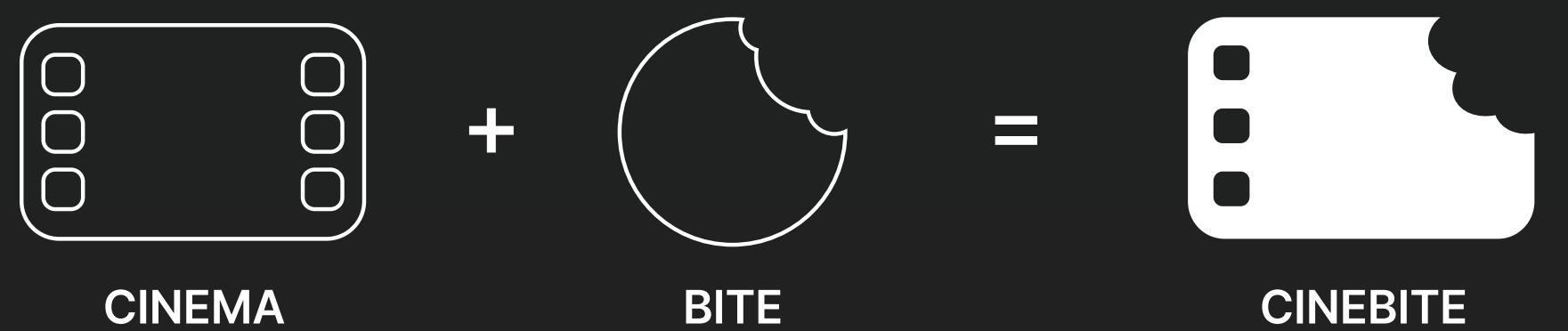
정보 구조도



로고 디자인

“한 입으로 즐기는 영화”

Cinebite(시네바이트)는 ‘Cinema(영화)’와 ‘Bite(한 입)’의 결합어입니다
짧지만 깊이 있는 영화 한 편을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경험을 의미합니다.



Font

Montserrat Alternates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Color

#0AE4E3

디자인 시스템

Font

Pretandard

프리텐다드

Heading

Bold, 40px **Bold, 32px** **SemiBold, 24px**

Body

Medium, 24px **Bold, 20px** SemiBold, 20px Medium, 20px **SemiBold, 18px**

Compon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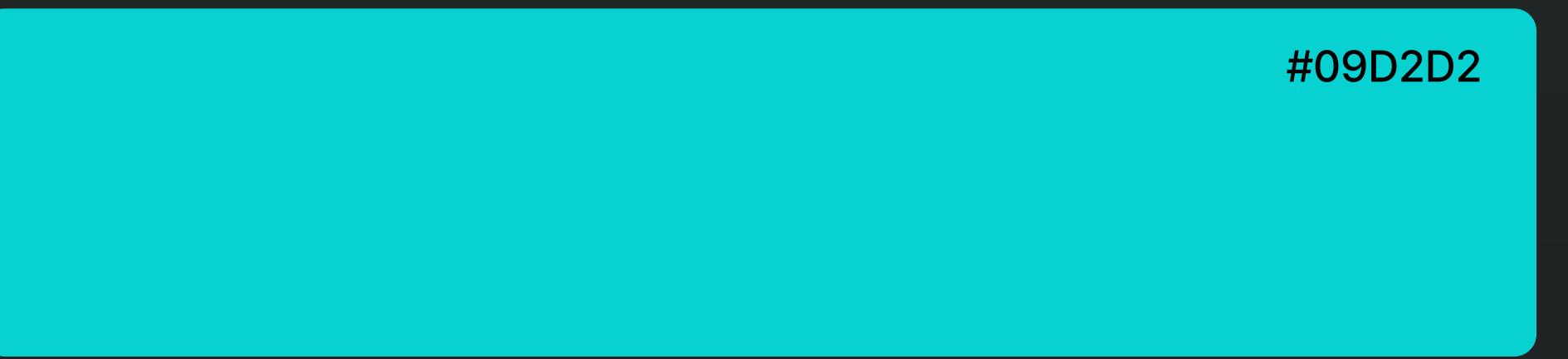


더 보러 가기

Ic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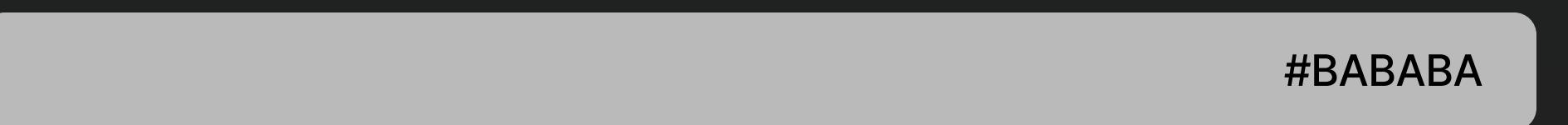
Col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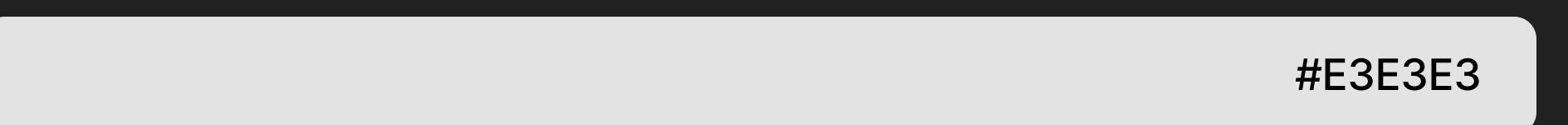
#09D2D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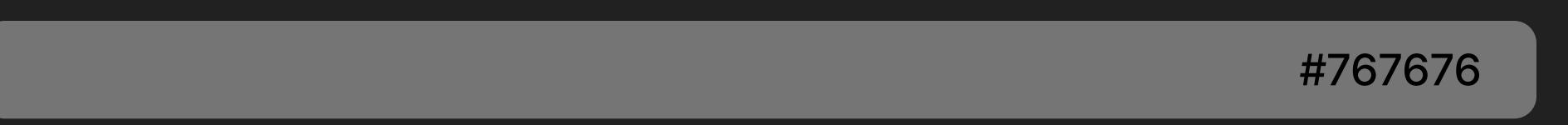
#C3E2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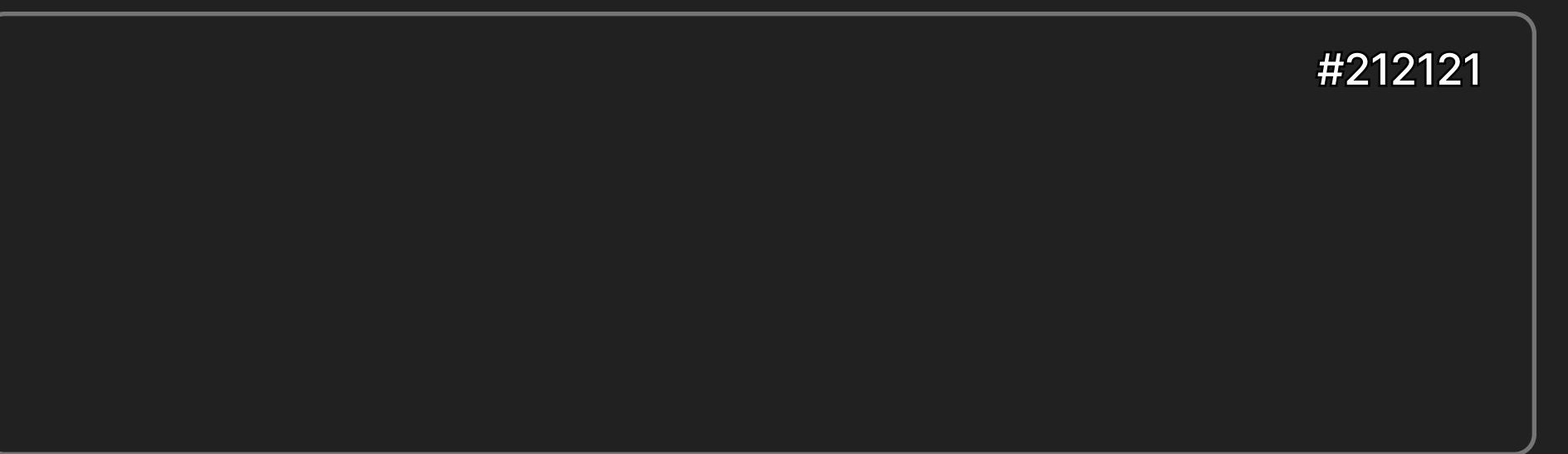
#BABABA



#E3E3E3



#767676



#212121

인터페이스

The screenshot shows the cinebite movie recommendation interface. At the top, there's a navigation bar with the logo 'cinebite' and links for '홈', '소개', '러닝타임', '둘러보기', and '보관함'. On the right side of the header is a search icon, a user profile icon with the name '바이트123', and a dark blue circular button.

The main feature is a large movie poster for 'Disney·PIXAR 인상아웃2' (Inside Out 2). The poster features the four main characters from the Pixar movie: Joy, Sadness, Anger, and Disgust, looking surprised or shocked. Below the poster, there are two small buttons: 'ALL' and 'CC', followed by the release year '2024 96분'.

Below the poster, there's a subtitle '빠르고 흥미진진하게' and the text '지금 내 시간에 딱 맞는 영화' (Movies that fit my schedule perfectly).

At the bottom of the main section is a horizontal slider with a green progress bar, showing '0m' at the start and '100m' at the end, with a midpoint at '0~30분 이내' (0~30 minutes). There are also buttons for '장르별' (Genre) and '평점' (Rating).

Below the slider, there's a row of five movie posters:

- '크라이어트 플레이스2' (Create Play 2)
- '흘마진 남' (The Flowing Man)
- '블신제한' (Bliss Limit)
- '마이드 톤 피포' (Myde Ton Pipo)
- '언제까지 옹알대고 있을 텐가' (How Long Will You Babble?)

At the very bottom center is a blue button labeled '더 보러 가기' (View more).

메인 이미지

강렬한 대표 이미지와 영화로 첫인상을 각인시키고,
자연스레 하단 큐레이션으로 이어지는 관심 흐름을 유도합니다.

영화 러닝타임 필터

슬라이더를 조절해 원하는 재생 시간대를 설정하면,
러닝타임에 맞는 영화들로 콘텐츠가 자동으로 필터링되어
사용자의 상황과 여유 시간에 맞는 감상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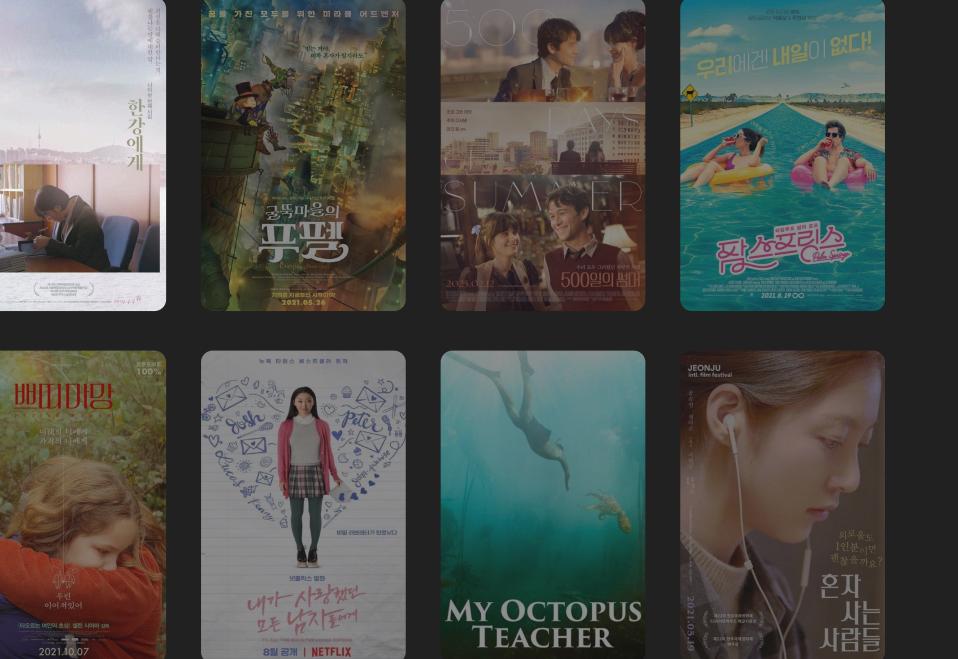
인터페이스

추천수별 TOP 8



한강에게 92분
2018 / 로맨스 드라마 / 한국
★★★★★ 4.5

첫 시집을 준비하는 시인 '진아'. 오랜 연인 '길우'의 뜻밖의 사고 후 매일 비슷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 대학교에서 시 수업을 하고, 친구를 만나며 괜찮은 것 같지만 추억과 일상을 써지지 않는 시를 붙잡고 있다. "괜찮나고 물지 말아 줘..." "자꾸 괜찮다고 물어보니까. 안 괜찮은데 괜찮다고 말 해야되잖아"



추천순위 TOP8

많은 사용자에게 추천받은 영화를 한눈에 보여줌으로써,
처음 방문한 사용자도 검증된 콘텐츠를 빠르게 파악하고
신뢰를 기반으로 감상 흐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유튜브에서 볼 수 있는 30분 독립영화

회원가입도, 결제도 필요 없어요.
비쁜 일상 속 잠깐의 여유가 필요할 때.
짧지만 마음을 울리는 30분 돋립영화들을
유튜브에서 시청해보세요.



개들의 침묵 | 20분

시위 현장에서 마주한 의경 아들과 운동권 아버지의 아이러니한 재회.



가장 보통의 존재 | 15분

짝사랑 앞에 선 소심한 진우와 친구들의 과한 상상 속 해프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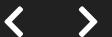
걸스온탑 | 5분

우희는 그녀와 이별하고 돌아오는 길에 주영을 찾아간다.



여름, 버스 | 18분

버스 안에서 일어나는 여름날의 소복한 이야기



30분 독립영화

짧지만 깊이 있는 돋립영화를 한눈에 볼 수 있게 구성해,
여유 시간에 가볍게 감상할 영화를 찾는 흐름을 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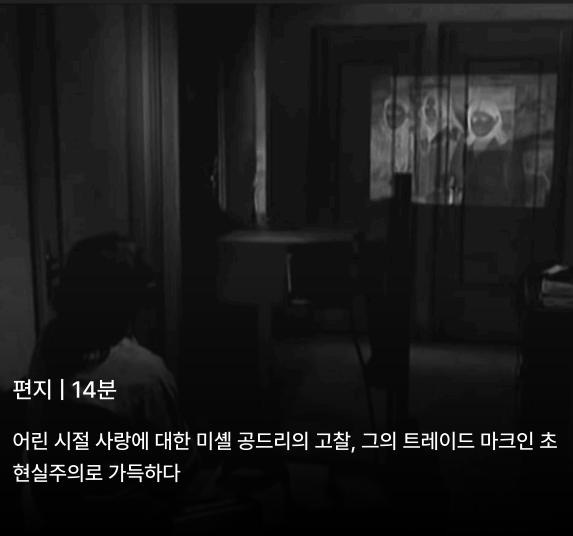
인터페이스

거장의 시작을 담은 데뷔작 모음



두들버그 | 3분

크리스토퍼 놀란의 시작을 엿볼 수 있는 1997년 단편
미행 주연 세레미 더오발드와 함께 퍼즐의 첫 조각을 맞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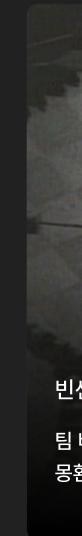
편지 | 14분

어린 시절 사랑에 대한 미셸 공드리의 고찰, 그의 트레이드 마크인 초현실주의로 가득하다.



지리멸렬 | 31분

봉준호의 초기 걸작, 네 개의 단편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한국 일상의 생생하고 날것 같은 단면을 담아낸 음니버스 영화.



빈센트 | 0분

팀 버튼의 빙센트 속으로.

데뷔작 모음

신인 감독의 데뷔작을 모아 소개함으로써,
색다른 시선을 원하는 사용자에게 새로운 발견의 흐름을 제시합니다.

예고편으로 골라보기

AI추천 기반



예고편으로 미리 보기

예고편을 통해 영화의 분위기와 스타일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며,
사용자의 시청 욕구를 자연스럽게 자극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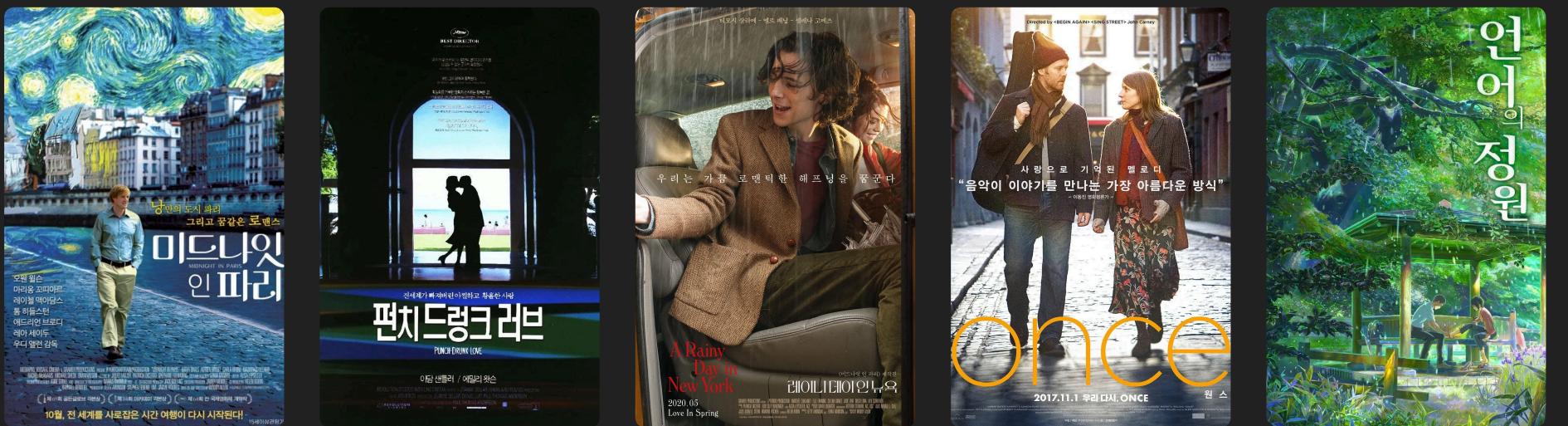
인터페이스

상황별 추천

밥 먹으면서 보기 좋은



비울 때 보기 좋은



더 보러 가기

상황별 추천

사용자의 감정이나 상황에 맞춘 큐레이션으로,
그 순간 가장 잘 어울리는 영화를 빠르게 선택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Thank You .

기획 | 문지원 박가연 이민호 김수빈 이유림

디자인 | 김수빈 이유림

코딩 | 문지원 박가연 이민호